

李, 경제 24회·성장 12회 강조... 與, 박수 12번 호응

“경제회복 넘어 새 성장 동력을”
“외교엔 색깔 없다”에 민주 박수
野, 고성·야유 없이 퇴장때 기립
“필요 예산 있다면 언제든 의견”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 회복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한 4천700여자 분량의 시정연설에서는 주요 키워드로 ‘경제’가 24차례, ‘성장’이 12차례, ‘회복’이 10차례 등장했다. 아울러 ‘민생’이 9차례, ‘위기’가 7차례, ‘공정’이 5차례 나왔다. 또 신산업 육성과 불평등 해소 조화 추구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협조를 구했다.

국민의힘은 피켓 시위나 야유는 하지 않고 이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 기립해 맞으면서도, 연설을 들으며 박수는 치지 않고 침묵으로 대응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연설을 마치고 퇴장할 때는 기립해 악수 인사를 하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6분께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했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의석이 있는 중앙 입구로 들어오자, 여당 의원들은 문앞부터 연단 앞까지 양측으로 서서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문앞 자리인 박찬대 의원과 가장 먼저 인사를 나눴다. 뒤이어 추미애·안규백 의원, 김병기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연이어 악수를 하며 연단으로 이동했다.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민석 의원이 이날 본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연단에 올라 우원식 국회

의장에게 먼저 인사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앉은 자리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다. 국무위원 의석을 향해서도 인사한 뒤 연설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이 10시 9분부터 17분간 시정연설을 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총 12차례 박수 호응을 보낸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를 치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은 연설 초반 이 대통령이 “외교에는 색깔이 없다”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한 대목에서 첫 박수를 보였다.

이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 대통령은 “(여당의 박수에) 감사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좀 속스러우니까...”라고 웃으며 에둘러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 연설 중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거나, 내용을 메모하는 등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 의원 중 일부는 눈을 감거나 휴대전화를 봤다.

이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추가할 게 있다면 언제든 의견을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다시 야당 의석을 보며 “대한민국 경제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조해달라.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주시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 고맙다”고 말했다.

이런 언급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들만 박수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마친 뒤 중앙 의석

은 물론 국민의힘 의석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우 의장과는 악수도 했다.

이 대통령은 퇴장 때는 국민의힘 의석 쪽으로 이동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립해 이 대통령과 악수 인사를 나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설 중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과 달리 대체로 적극적인 태도로 이 대통령을 배웅하고, 짧은 대화도 나눴다.

이 대통령과 ‘내란 특검’ 대상자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악수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를 마친 이 대통령 주변으로 다시 모여 인사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나란히 서 있자, 이 대통령은 두 사람의 손을 함께 맞잡으며 격려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소수 정당 의석으로 가 인사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반갑게 이 대통령을 맞으며 사진 촬영도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이 대통령을 향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탈당 인사인 무소속 김종민 의원과도 사진 촬영을 한 뒤 본회의장을 떠났다. 서울=김선욱 기자

與 “상법·양곡법·노란봉투법 등 6월 국회 처리 목표”

“방송법은 여야 합의 처리 중요”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상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등 윤석열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쟁점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13건, 여야가 대선에서 약속했던 민생 공통 공약 법안 16건, 민주당이 신속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민생 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회 중에 추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중점 추진 법안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 4법, 하청 노동자 기본권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 고교 무상교육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인공지능(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로 활용하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제도입하는 화물

차운수법 등을 제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6월 임시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7월 4일까지인 회기 중에 처리하지 못하는 법안이 있다면 곧이어 소집될 7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한다는 것이 목표지만 현재 전체적인 국회 법안 심사 여건이 충분치 않아 조금 고민”이라며 “6월 임시국회에서 안 되면 7월 임시국회, 7월 임시국회에서 또 안 되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여야가 바뀌었다고 민주당이 야당이던 때 추진했던 법안을 중단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 이른바 ‘알박기’ 인사를 제한하는 공공기관 운영법과 국회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국힘 배준영 의원, ‘광주사태’ 발언 사과

“광주와 늘 함께하는 마음이 진심”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운진군)은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고 발언한 데 대해 “부지불식간에 나온 말”이라며 “광주·호남과 함께하기 위한 마음은 늘 진심”이라고 사과했다.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발언 직후 곧바로 정정해서 발언했고, 정회된 이후에도 다시 한번 발언 기회를 통해 사과드렸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김민석 후보자에게 미국문화원 접거 농성 관련 질의를 하는 도중,

‘5·18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잘못 호칭한 것”이라며 “두 용어를 혼재해 듣다가, 혼선이 빚어져 부적절한 명칭을 사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서는 등원 이후, 2020년, 2022년, 2023년, 2024년 등 거의 매년 5월18일이면 광주를 찾았다”며 “그 정신을 왜곡 없이 계승하고자 하는 마음에는 추후의 흔들림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재차 사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첫 발언만을 문제삼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동료 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여야 원내 협상 ‘이견’... 與, 오늘 예결위원장 선출

與 “추경안 처리 위해 선임절차”
野 “법사위원장 양보해야 협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6일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포함한 원내 협상을 이어갔으나 이견만 재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오전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배석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6월 임시국회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27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협조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은 의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제사법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것이 되지 않는 상황에 본회의 개최에 협력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원장 등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안건 상정은 국회의장님과 상의해야겠지만 현재 공석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6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양당 오전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4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며 “합의 처리가 가장 좋지만 불가피하다면 예결위원장 선임 절차를 내일 밝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본회의를 일방 개최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 “원내 지도부가 논의하고, 의원총회도 열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 27일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정치검찰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황령 혐의로 도피 중인 배상운 KH그룹 회장이 ‘대북 송금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며 “윤석열과 정치검찰이 합작한 ‘이재명 죽이기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양당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안건의 본회의 상정 및 처리에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김선욱 기자

與, 상임위원장 3명 내정... 오늘 일괄 선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공석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의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 갑)을 내정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3선의 김교홍 의원(인천 서구갑)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3선의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 을)이 각각 내정됐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상임위원장 인선안을 전체 의원들이 있는 메신저 대화방에 보고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본회의를 개회하면 처리할 것이라고 알렸다. 민주당은 그동안 공석인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과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

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민주당 몫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대선 이후 바뀔 국회 지형에서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기존 합의대로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날 때까지 1년 더 현재의 원 구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27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김선욱 기자